

참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INDONESIA • THE ASSOCIATION OF K
2023

VOL. 73
2023 / 01

OK컨설팅



건설면허1달 완성

인허가/비자/세무/부동산/여행사

사무실 연락처 : 021)7504-578

한국인 연락처 : 0852-8185-5551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재 인니 한국건설업협의회 회원사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풍요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속에서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사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인한 어려움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 주시며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회원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박수를 보

내 드리며 회원사 여러분의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하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AKCI 회원사 여러분! 재 인니 한국건설업협의회 (AKCI) 한국기업은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해외건설 수주 1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시한번 AKCI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다. 2023년도에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AKCI회원사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 인니 한국건설업협의회 회장 이기홍



함께 기억하고 다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가족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를 겪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인회를 중심으로 협력해 주신 한인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회든지 안전과 성장을 연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출지라도 헌신적인 운영체가 있어야 문제 해결이 빠르듯 한인회가 어떻게 한인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


한가를 깨닫고 공동체가 책임을 나누며 더 나은 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을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기다림보다는 빠른 해결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필요하다면 의도적인 기다림 역시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맥락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받은 유산에서 개인의 삶은 그를 둘러싼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좌절과 아픔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고 외부의 압력에 반응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변화하는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한국인인 우리는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으로 우리

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부자바주 암바라와의 역사의 현장은 외형으로 더럽고 보기 흉한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위안소로 사용했던 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조선인 포로 감시원이던 고려독립청년단 중 3명이 항일의 거를 하다 자결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그 두 곳에 표지석을 세우고자 중부자바한인회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0년 이 땅에 정착해서 인도네시아 한인이주 100년의 역사를 시작한 장운원 선생의 망명생활이 한인이주의 시초인 것을 보면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안 이상 그저 지나쳐버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기념해야한다고 생각합

니다. 2023년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민간의 친밀감 형성 및 양국가간의 우호친선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소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을 열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미래를 함께 열어어나가자는 의미에서 마라톤, 골프, 축구 등 친선경기를 통한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수교 5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한인 주제를 인도네시아어판의 서적 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한인의 기록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하며 새로운 50년을 함께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인동포 가족 여



러분,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동행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새해에도 한인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도 잘 지나고 그렇게 바라던 일상회복도 완벽하진 않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로와 공감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듯이 2023년 새해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웃음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박재한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lub@muns.id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lub@muns.id, munsclub33@gmail.com
www.muns.id

2023년 신년사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선 지면으로 부임 인사 올립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금년 수교 50주년을 전후하여 우리의 핵심 협력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사로서 부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우리 동포사회는 지난 백여 년간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가장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동포사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발전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한인사회 1세대부터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근년에 들어 우리의 필요성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동남아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더 이상 우리 외교의 변방이 아닙니다. 특정국들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 경쟁과 경제

안보 시대의 도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이제 동남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인구 2.7억의 대국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와의 수교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작년 한 해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대통령의 발리 G20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금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우리 진출 기업, 대사관이 합심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이상덕 올림

외교부,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임명



▲신임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한국 외교부는 26일 주인도네시아대사에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대사를 임명했다. 주인도네시아대사에 선임된 이상덕 전 대사는 전직 외교관으로 외교부 동남아과장, 동북아시아국장 등을 지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

의가 발리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입하는 등 대형 외교행사를 앞두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덕 신임 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8년 외무고시 22회로 입부했다. 주요 경력으로 외교부 본부에서는 동북아시아국장,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남아과장, 서남아대양주과장을 역임하였고 재외공관에서는 주일본 1등서기관, 주중국 공사참사관, 주일본 공사참사관 및 주싱가포르 대사로서 역임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간소화된 관세법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동안 달성한 긍정적인 무역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화된 수출 대책을 세웠으며 새해 첫날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3일 발표된 수출부문 통관절차에 관한 재무장관령(PMK) 제 155호/PMK.04/2022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관세청 홍보 및 서비스 국장은 27일 올해 수출이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6% 성

장을 기록하며 11월까지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이 자료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나은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중 하나가 새로운 관세 규정을 제정한 것이었다. 니르왈라 국장은 성명에서 정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현대화 함으로써 수출 부문에 대한 세관 감독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규정이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상품 수출 신고서(PEB) 제출을 위한 보다 명확한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상품 수출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



▲북부자카르타 판중브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의 다른 주요 조항에는 수출 통합과 화물 회사의 관련 의무, 화물 추적과 물리적 검사를 위한 메커니즘, 화물의 적재와 운송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국가물류생태계(NLE)를 통해 물류체계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다. 니르왈라 국장은 수출업체들이 1월 1일에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서는 “브라보(Bravo) 세관 연락 센터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라보 연락 센터(The Bravo Contact Center)는 이메일(info@customs.go.id) 또는 전화(1500225)로 연락이 가능하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위축된 11월 인도네시아의 무역이 예상보다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 11월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성장률 기록한 241억 2천만 달러로 5.58% 증가에 그쳤다. 6월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세계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은 41%가 감소했다. 한편 수입 증가율은 8월 이후 국내 소비를 저해하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월 기준 각각 2.46%와 0.91% 감소했다. 인도네시아는 11월에 31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유지하며 수입보다 51억5천만 달러를 더 수출했는데, 이는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예상한 53억3천만 달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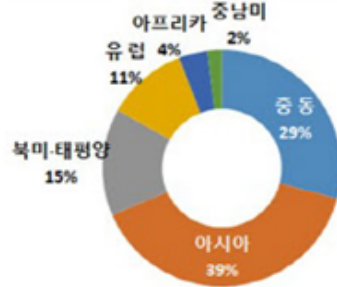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건설 코리아’,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달러 ↑ ... 인도네시아 1위

국토부 · 해외건설협, 지난해 310억달러 · 38.5억원 해외수주
2021년 306억달러 웃돌아, 2020년 이후 3년 연속 300억달러
아시아 수주액 비중 39%, 인도네시아 36.7억달러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달러 달성 총력”

< 참고 : 2022년 지역별 수주현황 >

구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수주액 (백만불)	비중 (%)	수주액 (백만불)	비중 (%)	
아시아	12,205	39.4	9,253	30.3	31.9
중동	9,021	29.1	11,220	36.7	-19.6
북미·태평양	4,536	14.6	3,934	12.9	15.3
유럽	3,411	11.0	4,596	15.0	-25.8
아프리카	1,204	3.9	199	0.7	503.7
중남미	604	2.0	1,379	4.5	-56.2
합계	30,981	100	30,580	100	1.3



국내 건설사들의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수주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해

외건설 수주가 310억달러(약 38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1년)인 306억달러 수주액을 웃도는 실적이다. 해외건설 수주는 2020년(351억달러) 이후 3년 연속 3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자재 가격 인상 등의 상황 속에서 ‘원팀코리아’로 수주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국내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해 총 580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수주액 비중이 (39%)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동(29%), 북미·태평양(15%), 유럽(11%)이 따랐다. 중동은 그 전년(37%)보다는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산업설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했다. 중동지역 상반기 수주실적은 28억달러(23%)이었으나 하반기에 62억달러(33%)로 늘었다. 북미·태평양 지역에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발주한 대형 반도체 공장,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 45억달러(15%)를 수주하며 비중을 확대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4%로 전체

에서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나이지리아 산업설비 보수공사 등 12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 2020년(11억달러)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36억7000달러), 사우디아라비아(34억8000달러), 미국(34억6000달러) 순으로 진출했다. 공종 별로는 산업설비(플랜트)가 높은 비중(42%)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건축(28%), 토목(19%), 용역(6%) 등이 차지했다. 산업설비는 중동 지역의 발주량 감소에 약 20% 줄었다. 건축은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공사에 힘입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주 외교,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정보 제공 등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달러 달성,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니 정부, 새 무역 규정 발표...기업들 RCEP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비준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후속 조치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무역부 장관령 56/2022호를 통해 규정된 새로운 조치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이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으로 간주되는 RCEP의 이행을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부장관은 새 규정이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취득 절차와 원산지 요건에 관한 다른 조항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제는 RCEP 제도 하에서 수출 상품의 원활한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RCEP을 이용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29일 무역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말했다. 기업들은 장관령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SKA) 또는 원산지 표시(DAB) 등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여 ‘우대 요율’을 청구할 수 있다. 수출업체들은 SKA와 DAB를

통해 다른 RCEP 회원국들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줄기플리 장관은 이 규정은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서 사용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아세안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무역과 국가 수출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행되었다고 말했다. 줄기플리 장관은 “RCEP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며, 기술 이전을 늘림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장려하고 지역 공급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외무역국장은 RCEP 협정이 인도네시아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역 협정들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는 RCEP 협정이 회원국들에게 무역 규칙을 단순화하고 확실히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RCEP이 지역 가치 콘텐츠를 도입하여 지역 생산 허브의 구축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 특히 이 지역에서 통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들(무역부 제공)

과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중국 등 5개 FTA 파트너국이 통합된 것이다. RCEP는 총 GDP(30.2%), 외국인 직접투자(29.8%), 인구(29.6%), 무역(27.4%) 등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으로 무역에서 유럽연합 27개국(29.8%)보다 약간 낮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조코위 대통령, 세계 경기침체 우려에도 “올해 5% 성장 가능”

세계은행 · ADB, 5.0%→4.8%로 하향 조정



▲자카르타의 마천루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해 5% 넘게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코 위도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자신했다.

3일 일간 콤포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올해는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5%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5.3% 성장, 2년 연속 5%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줄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고, 해외 자본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제조업체들의 상황도 좋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올라 2개월 연속 50을 상회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한다.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도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지난달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다소 부진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정부 지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면서 수출도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와엘 만수르 WB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지만, 올해는 그 속도가 다소 느려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인도네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5.0%에서 4.8%로 하향 조정



김재훈의 세무상식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한 정부령 규정

“2022년은 개인이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현물 및 향응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합산 2023년부터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 대상” 정부령 55호 (PP 55/2022) 가 지난 12월 20일 공포되었다.

현재까지 초미의 관심이었던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Natura) 및 향응(Kenikmatan)” 에 대해서 2022년부터 개인 과세로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르는지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기대하였지만 이번 정부령에서도 계산 및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제 31조 c 항에는 “제 29조에 언급한 현물 및 또는 향응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절차는 재무부 장관령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어디까지 포괄하겠는데 정부령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현물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현물을 제공할 때에는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즉 2023년부터는 고용주가 원천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등은 모호하기 때문에 연초 재무부장관령이 나오지 않으면 갑근세

계산시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

또한 HPP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현물 및 향응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 및 향응을 수령하는 납세자는 2022년에 소득세를 자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개인 연간소득세 신고시 자진해서 2022년에 받은 현물 및 향응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신고하여야 한다고 이번 정부령에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해석하기로는 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현물(Natura) 및/또는 향응(Kenikmatan) 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세부 시행령이 지연되어 회사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현물/향응을 제공받은 개인에게 2022년 납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개인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받은 현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시 누락을 할 경우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겠지만 제공한 당사자인 회사에는 손금 산입 또는 불산입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김재훈 대표

납세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 2022년초에 HPP 법률중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현물/향응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기고한 바 있었는데 2022년말 마지막 원고로 위의 내용을 다루면서 어떻게라는 내용은 빠지고 2022년 현물/향응을 받은 개인은 2022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2023년 1월부터 원천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으로 새해에는 세부시행령이 명확히 공포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i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인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kimjhoon@bngconsulting.co.kr

했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4.8% 성장을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 BCA 은행은 4.5~5.0%,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는 4.8%, 경제·법률연

구센터(Celios)는 4.3~4.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다니몬 은행은 정부 전망치와 같은 5.3% 성장을 예상했고, 인도네시아 국립대

부설 경제사회연구소(LPEM)도 5%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5.3%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SCBD Bar Project



2000년 회사 창립 이래,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법인 운영을 통해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 HDG** 입니다.

- Interior Design
- Branding
- Construction
- Factory
- Office
- Exhibition
- Commercial
- F & B
- Residential

We are your partner in building your dream space
for your business & living



Senopati, Kebayoran baru, South Jakarta - Indonesia | linktr.ee/HDGinterior
P : +6221 7205 007 M : +62 812-8759-0706 (ID) / +62 811 1124 998 (KOR) E: admin@hdg21.com

글로벌 경기침체 속 해외건설 간신히 '선방' ... 롯데·대우 웃고 GS·DL울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늘어난 곳 상위 10개사 중 4개 뿐 글로벌 경기 변동성 커지자 '신사업에 집중'

국내 건설사들의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가 간신히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 실적은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 글로벌 경기 불안이 이유로 꼽힌다. 상위 10개 건설사 중 2021년보다 2022년 수주액이 늘어난 곳은 4곳이었다. 롯데는 14배 이상 수주액이 늘어났다. 반면 GS건설과 DL이앤씨는 3분의1 토막이 났다.

1등 삼성물산도 전년보다! ... 롯데건설은 사상 '최대 실적'
5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총 309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물산이었다. 작년 한 해만 53억8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그러나 2021년 69억7000만 달러보다 22.81% 줄어든 수준이다.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년보다 수주액이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21년 35억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9억8400만 달러로 11.91% 늘어났고, 현대엔지니어링도 29억1000만 달러에서 33억9600만 달러

로 16.70% 증가했다. 4위인 현대건설은 33억9000만 달러에서 26만9500만 달러로 20.5% 감소했다.

눈에 띄는 기업은 5위인 롯데건설이다. 2021년 1억2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수주 규모가 17억6900만 달러로 14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롯데건설이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수주 실적을 올린 것은 해외시장에 진출한 1975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그룹내 수주가 많았던 영향이다.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법인 프로젝트와 롯데글로벌로지스(LGL)의 베트남 물류센터 사업 등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조성 사업인 '라인 프로젝트'를 수주한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당시 해외 수주가 주춤했던 대우건설도 2021년 6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1억1400만 달러로 수주액이 100%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나이지리아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를 수주한 영향이다. 베트남 복합시설 개발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를 수주한 것도 도움이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거 중동 진출 등에서 봤던, 수주액은 늘어나는

데 수익성은 안 좋아지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쟁력 있는 곳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GS건설과 DL이앤씨 등 수주 실적이 3분의1 토막이 난 기업들도 있다. GS건설은 2021년 26억3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억9400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DL이앤씨는 같은기간 17억2000만 달러에서 5억7700만 달러로 줄었다.

GS건설은 해외플랜트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최근 신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듈러 주택이나 수처리 사업 등이다. DL이앤씨는 공시 기준으로는 2022년 3분기까지 해외수주 실적이 2021년보다 더 좋은데, 계약 시점이나 협회에 수주액을 통보한 시점 등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시는 회사가 직접 하지만 협회는 계약서 증빙을 토대로 집계하기 때문에 수주로 인식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수주 매력 떨어져... "단순 도급 보단 신사업"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해외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지는 모양새다. 글로벌 공급망이나 유가, 환율 등의 변동성이 커



▲해외건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루와이스 석유화학단지 건설현장. GS건설이 길이 61m, 무게 1860t짜리 리제너레이터(족매 재생기)를 설치하고 있다. /조선DB

졌기 때문이다. 국내 주택시장이 어려워진 탓에 해외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도 있지만, 이들 역시 과거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택시장이 어려워지다보니 수주고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을 해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 중동 수주 문이 열렸을 때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해외수주를 확대하되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 고르겠다는 것이 대부분 건설사들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는 인프라 사업이나 국

가사업 위주의 대형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국제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발주도 감소한 상황에서 유가나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한국의 최대 텃밭은 122억1000만 달러를 달성한 아시아였다. 지난해는 중동이 112억2000만 달러로 1위였지만 올해 90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내 줬다. 북미와 태평양이 45만4000억 달러, 아프리카가 12억 달러, 중남미가 6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조선일보

SINCE 1969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와)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처럼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는 늦춰지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년 늦춰진다? 초등학교 입학 늦어진다?... 모두 사실 아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모두 3종류다.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친다. 이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극단적인 예로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태어난 다음 날이면 두 살이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한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살이 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민법 내에서 나이 표기를 '○○세'와 '만 ○○세'의 두 가지를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세'로 통일했다.

하지만 이처럼 만 나이로 통일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년 더 늦춰진다?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연령, 모두 '만 나이'로 통일
체감할 만한 생활상 변화 없을듯... 지금도 정년·연금 수령개시 시점 등 만 나이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허용, 군 입대 등에는 연 나이 적용 유지돼

한국 나이 계산 방법

- 44세 만나이**: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임. (2023년 6월부터 통일 시행 예정)
- 45세 연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빼 나이.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
- 46세 한국식 세는 나이**: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

사이 (본명 박재상) 1977년 12월 31일생
연압뉴스 박영석 기자 20221207

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 하는 조치에 가깝다.

지금까지도 법률이나 공문서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의 영향력이 드세다 보니 '만'이란 글자가 명기돼 있지 않으면 법조문이나 계약서에 적힌 나이를 세는 나이로 받아들이는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생겼다. 민법 조문 내에서도 '만 ○○세'와 '○○세'란 표현이 뒤섞여 쓰인 점도 이런 혼란에 일조했다.

일례로 과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 한정 운전특약의 적용연령을 두고 분쟁이 있었다. 보험 약관상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 고객은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는 사태 초기 예방접종을 앞두고 아스트라제

네카(AZ) 백신의 비(非)관장 나이가 '30세 미만'이라고 고지되자 기준이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만 나이 법제화는 이런 불필요한 분쟁·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만 나이를 성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만 나이 개정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금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제한연령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세는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법률·행정은 물론 사인 간 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보편 규범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면 세는 나이의 위세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군대 가는 나이, 술·담배 사는 나이

에는 연 나이 유지하되 추가 검토키로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하고 있다. 이번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김에 연 나이도 모두 만 나이로 바꾸면 좋을 듯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이다.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1월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에 따르면 이들 법령은 크게 ▲ '청소년 보호법' 관련 ▲ '병역법' 관련 ▲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로 분류될 수 있겠다.

이들 법령이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언을 다시 풀이하면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지난 2001년 5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다.

예컨대 과거 만 나이 체제에선 대학에 들어가 선배들과 술집에 가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신입생은 법률상 청소년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만 나이로 하면 또래 집단이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 나이로 바뀌자 같은 또래면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좇아 연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런 법령을 무리하게 만 나이로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김재규 위원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

년의 활동 중 복권이나 농약 구입 등은 또래 집단의 행위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연 나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병역법도 연령을 연 나이로 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2조 2항에서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이 1949년 8월에 제정됐을 당시엔 만 나이로 규정됐으나 1957년 8월 전부 개정되면서 연 나이로 바뀌었다.

이는 병력자원을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병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로 판단된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국적법령', '여권법령' 등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간 법령도 병역법을 따라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도 연 나이 법령이 있다.

이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20세, 18세는 만 20세, 만 18세를 가리키는데, '해당 연도에 만 20세, 만 18세가 되는 이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 20세, 연 18세를 뜻한다.

김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이 한 해에 여러 번 있지 않기에 같은 연도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 나이 규정이 채택됐다.

교육 관련 법령에서 재정 지원 개시일 또는 종료일, 검정고시 응시 나이 등을 연 나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김 위원은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관련 법령의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이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올해 중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http://space.megaenergi.id>
EPC Service & Energy Business (PLTU, PLTA)

창립 20주년
발전소 상업운전 4주년

인도네시아 에너지사업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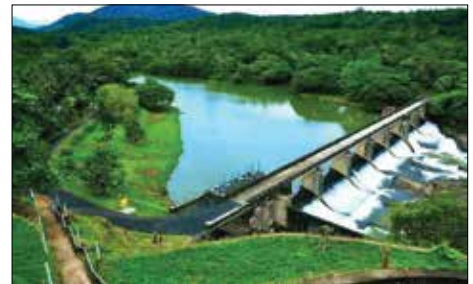
저희 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02년 전기공사 전문업체로 시작하여
전기, 계장, 기계, 건축, 토목 분야에 이르기까지
20년간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EPC 종합건설 서비스 업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에너지 IPP사업에도 진출하여
자체 화력발전소 1기 시공/운영 및 전력판매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수력 및 태양광 사업에도 지속 투자하며
에너지 사업의 Developer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우람 화력발전소 (보유지분98%, EPC수행)



라노야뽀 수력발전소 (IPP추진중)



스페이스 본사 및 생산설비 (제1,2,3 공장) 전경

Jl. Damar Blok F1-03 Delta Silicon II, Lippo Cikarang, Cibatu, Cikarang Selatan - Bekasi
Hunting 021) 8990-2215, Fax 021) 8990-2223 / Website : <http://space.megaenergi.id>
연락처 : 사업관리팀 안민성 HP : 0813-1684-5713 / 이메일 : anminsung@megaenergi.id



인도네시아, 새 수도 건설 삼림 벌채 가속화... '생태적 재앙' 경고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 주, 항구도시 발리파판 50km 이격 자연에 녹아들 수 있는 청정 자연환경 도시 건설을 계획



▲사진=뉴스시스 제공.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 건설이 한창인 만큼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새 수도 건설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열대우림 중 하나인 삼림 벌채를 가속화해 엄청난 생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인 누산타라는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 주에 있으며 항구도시 발리파판(Balikpapan)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다. 두 개의 자연보호구역이 인접해 있으며 오랑우탄, 긴코원숭이 등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종 서식지와도 가깝다.

신수도 1단계 이전은 2024년 시작되며 전체 수도 건설은 2045년 완료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 주민이 발리파판 인구의 두 배가 넘는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보르네오 중심부에 주택지 개발과 산업 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리파판에서 누산타

라까지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것은 수천 종의 동식물 종을 보유한 생물다양성 지역에 새로운 수도 건설문제가 잠재적인 심각한 영향을 보여준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새로운 수도의 삼림 벌채는 보르네오에서 이미 큰 문제인 더 많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발리파판만에 습지 손실과 맹그로브 서식지 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넓은 삼림 지대를 평평하게 하면 지표 유출수가 증가하여 하류의 발리파 판에 더 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환경단체인 인도네시아환경포럼(Walhi)의 산림보호 주장자인 울리는 “큰 생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와 자바섬이 직면한 인구와 경제발전에 대한 압박이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카르타는 주변 인구를 포함

약 300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아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1만5000명 이상이 밀집해 있어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이 없다.

수도 이전은 경제활동을 자바 밖으로 확대하고 지역 빈부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더 나쁜 것은 자카르타의 5분의 2가 해수면 아래로 떨어져 있고, 일부 지역이 매년 20cm 씩 가라앉고 있다는 점때문에 조코는 수도 이전 추진에 전례 없는 시급성을 보이고 있다.

조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 수도가 ‘스마트하고 녹색이며 깨끗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도시 개발을 기존 기름야자 및 목재 농장과 이미 사용 중인 다른 토지로 제한하고, 삼림 벌채를 허용하지 않으며, 도시 주변의 녹지를 완충지로 남겨두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수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건축가 소피안은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글을 대체하는 대도시가 아닌 현대적 대도시를 탄생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른바 “대적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에 녹아들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누산타라의 건설은 또한 이 지역의 원주민 커뮤니티에 집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비전미디어

현대건설기계, '자원 강국' 인도네시아 굴착기 시장 공략...딜러사 추가

인도네시아 농기계류 유통업체 'PT Satrindo Mitra Utama' 추가 대동 미국 자회사 KIOTI 브랜드 장비도 취급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네시아 농기계 유통업체 PT 사트린도 미트라 유타마(Satrindo Mitra Utama, PT. SMU)를 딜러사로 추가했다. (사진=PT. SMU)

HD현대의 건설장비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 굴착기 시장 공략을 위해 유통망을 넓힌다. 굴착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딜러사를 추가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네시아 농기계 유통업체 PT 사트린도 미트라 유타마(Satrindo Mitra Utama, PT. SMU)를 딜러사로 추가했다.

현재 PT. SMU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12개의 지점과 딜러가 있다. 현대건설기계 중장비와 대동의 해외브랜드 KIOTI 트랙터, 한성(HANSUNG) 수확 장비를 취급한다.

현대건설기계가 인도네시아에서 딜러사를 추가한 건 굴착기 시장 공략을 위해서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국으로, 최근 현지 광물 채굴 수요가 증가해 장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공식 딜러사인 유나이티드 이큅먼트 인도네시아와 함께 125t급 초대형 굴착기 4대도 수주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딜러 추가의 인도네시아 내 판매 촉진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기관 5곳과 도소매 금융지원을 위한 파이낸싱 상품도 개발했다.

현대건설기계가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 공을 들이는 까닭은 실적 증가세는 물론, 앞으로의 시장 전망 또한 밝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3분기 중남미 국가들과 중동 산유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27% 늘어난 349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수익성이 좋은 초대형 굴착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 법인 마케팅과 신속한 납기 등이 성과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구멍조끼,수영보드,헬멧 및 장갑,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아이콘(AICON), 스마트 건설 플랫폼 3종 특허 출원

‘카스웍스 특허’ 기술, 실시간 현장영상 기반 건설데이터 활용 특허 출원으로 건설 협업 툴로 입지 굳혀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네시아 농기계 유통업체 PT 사트리노도 미트라 유타마 (Satriindo Mitra Utama, PT. SMU)를 딜러사로 추가했다. (사진=PT. SMU)

건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 (주)아이콘(AICON)이 자사 기술을 활용해 특허 3종을 출원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허 출원은 아이콘이 운영중인 스마트 건설 플랫폼 카스웍스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설 관계자 협업 시스템, ▷건설 현장의 영상 입력장치를 이용한 공사일보 자동 작성 시스템, ▷건축 도면 상호 연결 및 정보 검색 시스템 특허로 업계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기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콘은 건설산업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정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카스웍스의 입지를 다지고, 현장에서 쉬운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기술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특허 기술 상용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카스웍스는 건축사, 시공사, 감리, 자산운용사 등 건설 현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참여자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공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보고 ▷공정표 ▷기성/실행관리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실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설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올 12월 기준 카스웍스는 전년동기 대비 건설 프로젝트 수는 약 240% 증가, 누적 작업보고 건 수 5만4,000건 등의 눈에 띄는 지표를 확보 중이다.

아이콘 김종민 대표는 “아이콘은 쉽고 편리한 디지털 건축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써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며, “특히 카스웍스는 현장의 건설 데이터를 실시간 영상 기반으로 기록하는 플랫폼으로 글자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한글라스, 더블로이유리 에버라이트 SKS142II 출시

차별화된 실버 컬러 적용해 소비자 마음 사로잡을 계획
열관류율 0.99W/m2K 더블로이 중 최고 단열성능 (26mm 아르곤복층유리 기준)



국내 최초 유리 제조기업 한글라스(www.hanglas.co.kr)가 은은한 실버 색상이 돋보이는 에버라이트 SKS142II 더블로이유리를 출시했다. 상향 표준화되는 시장 상황에서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해내는 ‘뉴디맨드(New Demand)전략’의 일환으로, 한글라스는 지난 7월 기존 색상과 차별화되는 우수한 그레이 색상의 더블로이유리 시리즈를 런칭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SKS142II는 마찬가지로 기존 색상과는 차별화된 실버 컬러를 적용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건물의 생동감을 더해주는 실버 색상의 유리는 최근 건축용 유리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 명동 센터포인트, 광명 의료복합시설 등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에 꾸준히 적용되어 왔다.

에버라이트 SKS142II는 한글라스에서 개발한 특수 나노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투과와 반사 색상 모두 뉴트럴한 실버 색상을 구현했다.

투과색상에서 약간 초록빛이 도는 기존 실버 색상 더블로이유리의 특성이자 한계점을 돌파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더블로이유리보다 더 개선된 단열성능으로 26mm 아르곤 복층유리 기준 열관류율 0.99W/m2K로 국내 출시한 더블로이유리 중 가장 낮은 열관류율을 가지고 있다. (공기층 16mm 아르곤 가스 적용 시)

한글라스 관계자는 “건축용 유리의 색상 트렌드가 그레이와 실버로 가면서 그레이, 실버 색상의 로이유리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며 “에버라이트 SKS142II는 우수한 단열 성능은 물론 색상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제품인 만큼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뉴트럴한 실버 색상의 제품이다” 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한국건설신문

케이피에프인베스트먼트, 인도네시아 Bandung Barat 지방정부와 MOA 체결 Cirata 호수 종류에 수상태양광발전소 150MW 개발... 아시아 최대 규모 전망

(주)케이피에프인베스트먼트가 지난 7월 (주)KPMI와 인도네시아 Bandung Barat 지방 정부와 Cirata 호수 종류에 수상태양광발전소 150MW 개발에 대한 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케이피에프인베스트먼트와 반둥바랏의 행키군수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현재 아시아에서 수상태양광으로는 최대 규모의 발전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태양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인 수상을 이용하면 태양광발전소의 발전효율이 높아지며 수질정화에 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케이피에프인베스트먼트(인도네시아) 김도관 대표는 “온실가스 없는 안전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공공기업, 국제적인 기



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에너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이번 인도네시아 Bandung Barat 지방정부

와의 MOA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세계일보

한국건설신문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건설, 토목, 플랜트

-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3-4686
-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060-7257
-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 삼한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땅그랑 021 5579-8505
-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중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 PT. SPACE TECHNOLOGY**
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
-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UJ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 PT. SSA**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5736
-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트 021-5574-1492
-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트 0254 402323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PT.UTAMA JAYA TEKNIK**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땅그랑 021 5577 4507~09
-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 PT. WOO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 PT.HAECHANG DEVELOPMENT**
토목(타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
종 패널 공사
땅그랑 021 5568 5408
-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 PT. Muns Cipta Bangun**
토목, 철골, 건축, 인테리어
땅그랑 021 5541 747

공단 및 지사

-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40-0025
-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 국가철도공단**
자카르타 021 5058-8812

ENGINEERING

-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 SAMSUNG C & T Corporation**
자카르타 021 2988-0418
-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트 0254 848-7678
-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 Civil,
M&E, Treading
땅그랑 021 5578-0702
- PT. P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 PT. F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건축설계 사무소

-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기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 PT. W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건축자재

-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싱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o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 PT.ARI TECH INDONESIA**
공장수질개선, 정수시스템
0815 4655-5680
-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Contruksi Plat Besi,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땅그랑 021 5940-0081
-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a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
tion,
땅그랑 021 5444-393
-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 PT.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 PT. KUMGANG INTERNATIONAL**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5568 5408

- HANSHIN**
컴프레사
땅그랑 021 5949-4000

-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툴
찌까랑 021 8990-2723

-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 에스와이패널**
EPS 패널
땅그랑 021 2932-5742

-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 PT.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땡 0721 780 151, 0721 781 457

-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재, 접착제
쯔빠라 0291 751-2706

-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 CV.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카시 0811 1929 350

- PT. Lineone indonesia**
Scaffolding Fabrication
땅그랑 021 5574 1492

-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공급
질레곤 0813 8039 7748

- PT. KTC MITRA INDONESIA**
U-PVC, 알루미늄도어, 창문, 하이샤시
보고르 021 8792-9422

- NEXTIN**
LED, Special Lighting
자카르타 021 3104-414

- PT.indobaja**
방화문제작, 철재절단, 절곡
땅그랑반트 021 5935 5882

- ECO INTERNATIONAL**
맨홀뚜껑 & 그레이츠
0815 8989 667

- PT. IMGLOBAL [PAPERYARN]**
건축자재, LVR, DECO, DELUXE TILE
자카르타 021 2247-6211

설비

-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질레곤 025 434-0319
-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자카르타 021 2902-2342
-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트레이
땅그랑 021 558-6446
-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땅그랑 021 2901-5282
- PT. ECO international**
맨홀(Manhole),그리스트랩
자카르타 021 2782-8878
- PT. SUNG HWA PLUS**
Total Fire Protection Solutions
자카르타 021 4064-2114

인테리어

- HDG**
Interior, Branding,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7205-007
- 채움디자인**
Design & Build
자카르타 021 8946 9398
-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7884-9247
-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땅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짜까랑 021 2956 3356/57

ITL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자카르타 021 5011 2120

중장비, 기계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PT.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땅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여행사
자카르타 021 7504-578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땅그랑, 짜까랑, 브카시, 스마랑, 자카르타, 보고르외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브카시 021 8240-0880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재인니 한국 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포스코인터, 인도네시아에 팜 정제공장 추진
2500억원 투자... 칼리만탄섬 부지로 유력
2025년부터 연간 50만 생산 목표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주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 농장 법인 'PT.BIA' 전경./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

포스코인터내셔널(21,300원 ▼ 150 -0.7%)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팜유 정제사업 진출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2억달러(약 2500억원)이고, 팜사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아그파(AGPA)를 통해 진행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팜유 정제공장을 올해 4분기 착공, 2025년 2분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제공장 부지로는 칼리만탄섬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최대 팜 생산국으로 칼리만탄섬은 지리적으로 팜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설명했다.

팜유 정제사업은 팜농장에서 생산한 팜원유를 정제공장에서 한 단계 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제된 팜유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등에 쓰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팜유 정제공장에서 연간 최대 50만톤(t)의 제품을 생산,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팜유는 대두유보다 10배, 해바라기유 대비 7배 등 식물성 기름 가운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다. 팜유 가격 역시 2020년 1t당 600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1800달러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95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관 LMC는 향후 10년 동안 팜유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팜유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정제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 농장을 개발해 2017년부터 팜원유를 만들어 왔다. 지난해는 CPO(팜원유)를 18만t 생산, 매출 1억7000만달러에 영업이익 8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팜유 사업 영업이익이 8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으로 에너지, 식량, 친환경 부품 등 핵심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종합상사에서 '글로벌 종합상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정택 부회장은 "기존상사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종합상사로의 전환을 위해 수익성 높은 사업을 발굴,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올해를 식량사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 조달 및 수요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기반을 강건화 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소리 항공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1588-1330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 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iair.co.kr

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

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

올해 무역적자가 걱정이 된다면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90%가 한류에 긍정적인 나라다. 그만큼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사랑을 받는 나라다. 한국 기업의 빠른 혁신과 성장뿐만 아니라 한류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호감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억8,000만 명 인구로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폭락했던 세계 증시에서 가장 견고하게 성장했던 나라의 하나이고, 매년 700만 명의 인구가 출생하고 연간 6% 이상 경제 성장하는 나라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다. 니켈(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이 풍부한 원자재 부국이다.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교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우리 경제의 큰 걱정은 무역환경의 악화이다. 지난해 대중 무역수출은 4.4%로 감소했으며,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11월, 12월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신흥 성장국가로서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주력 성장 국가였던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사례가 아마존에서 매트리스 판매 1등인 가구 제조업체 지누스다. 지누스는 중국에서 생산한 매트리스를 미국으로 수출

하는 방식으로 매출의 90% 이상을 창출했던 회사이다. 그런데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반덤핑 과세를 물기 시작했다. 관세율은 57.03%에서 1,731.75%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지누스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매

트리스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지누스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현재 지누스는 인도네시아 1, 2공장에 이어 제3공장 증설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기회이긴 하지만 단지 생산만 외주하는 개도국 전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을 연구개발 부문에도 고용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여 년 중 한국 경제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있다. 위기에서 기회를 보면 기업가이고, 위기에서 어려움을 보면 전문가이다. 기업가정신의 80%는 기회 포착이다. 한 번 몰려온 파도는 다시 한 번 몰려오지 않는다. 기업가정신은 빨리 움직이는 타이밍싸움이다. 인도네시아에 붙고 있는 한류 붐과 함께 글로벌 체인망에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대중 우회수출 경로로서의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다. [한국일보]

인도네시아를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유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기존 인버터 타입 모델 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한상윤 부장 : 0822 9999 1447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